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 ▶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15:00~17:00
- ▶ 장 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층 중회의실(612호)
- ▶ 발표자: 이승훈 센터장(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 발표주제: 청소년참여와 활동중심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청소년참여와 활동중심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지역이 곧 학교다

이 승 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마을교육력을 키우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1.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¹⁾ 소개

가. 청소년시설과 도서관이 융합된 새로운 센터, 공릉동²⁾과 만나다.

후보자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일한다. 우리센터는 노원구 공릉2동에 위치하고 있다. 공릉2동은 동별 인구로만 보자면, 전국에서 가장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4만 7천명). 인구 구성은 젊은 층이 많고, 청소년, 영유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공릉 1, 2동 지역에는 주민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노원구의 외곽지역인데다, 철길이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았던 지역이다. 공릉동은 2008년경 학교 옆 납골당 반대 투쟁으로 주민갈등이 장기간 이어져온 마을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이 싸움은 3~4년간 이어졌다.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마을의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기억한다. 또 센터가 처음 문을 열고 주민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릉동이라는 마을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그 것은 마을 이름이 가진 뜻과 마을의 부정적 이미지가 결합해 만든 정서였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은 공릉이라는 한자의 뜻을 ‘아름다운 언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010년 노원구청에서는 납골당 반대 투쟁이 한참이던 공릉2동 지역에 현재의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청소년 문화시설과 도서관 시설을 한 건물 안에 설치한 복합시설 건설하였다. 2010년 10월 위탁준비 시기부터 인권과 평화의 대학 성공회대학교에서 노원구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대지 1,018㎡, 건물 2,595㎡(약 800평) 규모다. 주요 시설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도서관과 열람실, 다목적실,

1) 노원구립시설 청소년문화시설이자 공공도서관으로 2010년 10월 건립되었음.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시설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두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 공릉동은 서울 노원구의 외곽에 위치해있다. 孔陵(공릉)이라는 마을 지명의 뜻은 여러 역사적 배경과 해석이 있지만 최근 주민들은 마을 이름의 뜻을 ‘아름다운 언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무용실, 유스카페, 상담실, 음악실, 교육 프로그램실 등 조금 복잡하다 할 정도로 다양하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청소년지도사, 사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상담사, 시설관리직 등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일도 구성원의 다양성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일하는 직원은 정 직원 16명과 안내, 청소, 경비, 야간 운영 등에 약간명의 인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 이런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자는 우리 센터를 부를 때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도, 도서관이라고도, 복지관이라고도, 상담실이라고도, 주민회관이라고도, 평생교육센터라고도 부른다. 한마디로 잡종, 좋은 말로 융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2010.12.28.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개관 준비를 위해 일꾼(직원)들이 모였다. 우리는 개관 준비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다. 그럼에도 매일 같이 바쁜 일상은 계속되었고, 부족하지만 임시개관이라는 형태로 문을 연 마을 청소년센터를 둘러보기 위해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기대는 높았고,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문은 넘쳐났다. “어떤 프로그램 할 건가요?” , “도서관에는 책이 몇 권이나 들어와요?” , “상담 프로그램은 할 건가요?” , “이 마을의 상황에 대해 좀 아시나요?” 그러던 중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청소년 두 명이 찾아왔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요? 예전엔 우리 마을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계속 싸우고, 경찰버스도 서있고는 했어요. 하여튼 재미있는 일들이 청소년센터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년간 이어진 납골당 반대투쟁을 겪었던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였다.

나. 마을 교육력을 키우는 청소년 센터로 한발 내 댈다.

이런 주민들의 서비스 요청에 이끌렸는지 사업 초창기 한때, 우리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의 생태는 바꾸려 하지 않고, 특색 있는 몇 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함께 일하는 일꾼들은 청소년을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만나려했다. 주민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해서 열심히 참여하려는 주민들과 서비스 제공자인 일꾼들 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재능 나눔으로 진행되는 마을학교 등 몇 가지 활동들을 통해 성공을 경험했다. 차차 우리센터의 일꾼들의 마음은 열렸다. 이제 “마을은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육력’ 이 있다.” 고 믿으며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마을을 잇는 활동을 처

음부터 응원해준 이웃들이 있었다. ‘도서관 일촌’ 과 ‘든든한 이웃’ 이라는 주민 자원 활동가 그룹이다. 우리센터는 시작부터 마을에서 협력자가 되고, 함께 꿈꾸며 행동할 이웃들을 찾으려 했는데 2011년 4월 봄이 오면서부터 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2주의 도서관학교라는 이름의 지역사회교육을 통해 우리와 함께 꿈꾸는 많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을 교육력에 대한 일꾼들의 작은 믿음과 초기 우리의 뜻에 결합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힘은 대단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한 센터 운영을 넘어서 마을 교육력을 키우는 운동을 벌일 수 있게 해준 힘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청소년과 마을을 잇는 활동의 실행을 함께 고민했는데 그 실천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마을은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었고, 학교와 학원을 다니느라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온 일상을 보내는 마을 안에서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확장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포기할 수 없었다. 활동의 첫 시작은 센터 내부의 일들을 청소년들과 나누는 것이었다. 먼저한 일은 청소년시설의 법정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이었다. 다음은 도서관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어린이 도서관 일촌 선발, 청소년 유스카페 운영단 모집 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자치기구들은 활동이 다른 시설의 사례를 답습하면서 쉽게 정형화되었고, 운영을 담당하는 일꾼들의 생각과 결정에 쉽게 이끌려가면서 주체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간은 주민의 것이다. 일단 센터의 모든 공간들을 여는 일부터 다시 고민했다. 주민 활동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제를 정비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모임에는 쉽게 빌리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발적 활동이 일어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청소년들이 마을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냈다. 이렇게 시작한 활동들이 바로 ‘시작된 변화’ , ‘동아리 자율활동단’ , ‘누구도 하지 못한 프로젝트’ 등의 미완결 구조의 플랫폼³⁾ 활동들이다. 자신의 삶, 여가, 마을과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았고, 그들의 자발적인 활동들을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가진 문제를

3) 서비스 구조는 완결적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틀의 계획만 가진 미완결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초기 기획은 활동의 방향과 몇 가지 원칙만을 제시하는 느슨한 형태다. 대신 구체적인 사안은 관심을 가진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활동을 하면서 결정한다. 보통 관심을 가진 3명이상의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체제를 유지한다. 이러한 미완결 구조의 플랫폼 전략은 센터 내 주민활동에도 적용되는 방식이다.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가는 활동들이 번져갔고, 자신의 시간의 주인되는 동아리 활동과 자신의 인생길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마을과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활동은 1년간 또는 2~3개월 단위의 프로젝트이며, 실천 활동을 통해 마을 문제의 해결을 도모함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비판적 사고능력, 기획력과 실행력을 기르고, 활동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결과를 얻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이 활동으로 숨통이 트이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2.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열 가지 운영 콘셉트

우리센터의 모든 활동의 기저에는 하나의 철학이 관통하고 있다. 그 철학은 **“경험이 최고의 학습이고, 최고의 경험은 마을 안에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 뿐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설명해주는 열 가지 주안점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첫 번째, 자발적 경험을 중시, ‘경험이 최고의 학습’이라는 철학 적용

‘경험은 최고의 학습이다.’ 우리 센터가 가장 중요시하는 활동의 철학이다. 우리 센터는 존 듀이의 경험학습이론을 바탕으로 최고의 경험은 마을 안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대부분의 사업 속에 이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센터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활동은 ‘마을 안에서, 일상 속에서 청소년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경험을 열어주는 것’이다.

○ 두 번째, 사업의 대상이 아닌, 활동의 주체로서 청소년과 지역주민

우리는 청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일, 환경 관련 주제,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가지고 만나고 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청소년을 모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도서관일촌, 시작된 변화 활동 그룹, 공연기획단 이런 식의 이름으로 모여진 청소년들은 소속감이 고취되었고, 우리는 이들이 직접 운영자가 되도록 응원해왔다.

아이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이 선택한 경험을 하면서 매우 신나한다.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을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 찾고, 그 경험을 먼저 해본 사람을 만나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을 견학하기도 했다. 심지어 거의 책을 보지 않던 친구들에게 어떤 책에 네가 고민하는 과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더라 하면 그 책을 열심히 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면 이렇게 신나서 활동한다. 이뿐 아니

라 청소년이 직접 시도하는 활동에는 무엇인가 마력이 있어서, 따로 우리센터의 직원이 홍보하지 않아도 참여하는 아이가 많아졌다. 지역의 주민도 너도 나도 도움을 주겠다고 거들기도 한다.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주체는 청소년이기도 했지만, 주민이기도 했다. 청소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어른의 아이디어와 실천이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여튼 우리센터는 직원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앞으로 조금씩 더 청소년과 주민이 활동의 주체가 되는 방법을 궁리하고 그러한 기회를 점차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 세 번째, 지역공동체의 힘(교육력, 복지력)을 키우는 ‘인큐베이팅’에 관심

우리 마을에는 우리 마을만의 ‘교육력’이 있다. 그 교육력을 우리는 ‘지역 교육력’이라고 지칭한다. 지역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들 키워내는 힘을 발견하고, 약해져가는 그 힘을 키워내는 일은 우리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센터가 노력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몫이다. 그런데 우리센터 혼자서만 그 몫을 잘 감당해내서는 마을의 힘 ‘교육력’이 키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만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역사회 교육력이 회복되고 커지는 데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교육력 문제를 마을의 주민 또 여러 기존 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경쟁보다 협동이 중시되는 새로운 교육을 함께할 주민분들과 만났다. 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아파했다. 그 결과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든든한 이웃, 도서관 일촌, 그림책동아리 ‘나랑같이’, ‘책아띠’ 모임 등 일상 속의 작은 모임과 만남이 마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 2012년에는 ‘꿈나르샤’라는 이름의 마을 청소년축제를 함께 운영하기도 했고, ‘꿈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의 마을 공동체를 탄생시킬 수도 있었다. 현재는 인근 학교의 학부모회, ‘어린이책 시민연대’, ‘사교육 없는 세상 만들기’ 모임, ‘노원나눔연대’ 등 마을의 기존 조직이나 모임에서 진행하는 일에 도움을 주거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도 한다.

○ 네 번째, 단편적 지식 습득이 아닌, 청소년 핵심 역량 개발에 초점

OECD국가의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연구했다. DeSeCo 프로젝트 (청소년정책리포트 vol7, 2010.4)⁴⁾ 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에 주목했

다. 우리는 그 결과에 맞춰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는 세 가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대부분의 활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그 활동의 결과를 자신의 말과 글로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고 있고, 활동의 과정에 청소년들이 서로 돕고, 갈등을 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3인 이상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를 얻고자하는 청소년의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는 읽고, 쓰고, 말하는 역량이 있는 청소년이다. 둘째는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이 있는 청소년이다. 세 번째는 자기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삶을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역량을 가진 청소년이다. 결국 우리는 **자주적이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청소년**을 길러내는 것을 초점으로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첫 번째 역량은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 읽고, 쓰고, 말하는 역량

이 역량은 언어, 상징, 문자, 컴퓨터 활용 능력, 이 밖의 기술을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센터는 여러 도구 활용 능력 중 읽고, 쓰고, 말하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역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독서하도록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을 고민했다. 우리는 지적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업을 가지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과업을 찾아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발성에 기초한 청소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역량은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

이 역량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표현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품성과 태도인데, 사람의 품성과 태도가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이제 능력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 청소년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OECD 국가 중 꼴지라는 발표가 있었다. 지나친 경쟁사회와 경쟁 교육 때문이다. 그럼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단번에 경쟁을 불허하는 특단의 정책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의무화 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변형하는 것이 당장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봉사활동을 시작된 변화라는 이름의 자발적 사회참여 활동으로 만들어내었다. 봉사시간을 몇 시간 했느냐에 관심을 두기보다,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실천을 하게하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도록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역량은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 자기 주도적 역량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성인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연령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결혼을 하고도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앞선 세대가 예측할 수 없는 다원화되고, 급격히 변화된 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앞선 세대가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예측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헤쳐 나가야 할 청소년에게 구시대적 경험에 근거한 해법만을 제시하고, 외우고, 따라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청소년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묻고, 자율적으로 선택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 갈 것인지 삶의 경로를 계획하고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는 것이다.

4) 청소년정책리포트 중 “미래세대리포트 : 청소년의 핵심역량의 개념,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박사)”에서 발췌 재정리

○ 다섯 번째, 공간은 주민의 것, 마을의 평생학습, 주민자치 소모임을 지원하는 공간 활용

청소년센터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돈 내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닌 사회적, 공적 필요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 누구나의 기 관임을 말한다. 즉 청소년센터는 공공의 자산이고, 공동체의 것이니, 공간을 청소년과 주민이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자, 관리자로 입장이 바뀌게 되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워진다. 주민으로 있을 때에는 쉽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직원은 주민이 이용하고 난 자리에 정리해야 할 일감이 넘쳐날 것을 걱정하고,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과 관리 비용을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센터는 공간은 주민의 것이고, 그 공간을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여섯 번째, 재미와 감동은 필수적 요소, 사업 추진에서 우발적 요소 인정

우리는 일단 도서관 활동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육활동에서 엄숙한 활동의 틀을 조금 깨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용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재미있는 문화적 요소를 많이 고려하고 있다. 노래도 틀고, 먹을거리도 주고, 향기를 뿌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비디오도 보고, 미디어적 요소를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우발적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우발적인 부분이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든 흥미롭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우발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센터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규칙과 활동의 콘텐츠를 다 결정해두고, “주인이 된 청소년 여러분 참여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흡사 동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주인이 되게 하는 비결은 준비 단계부터 ‘무엇을 함께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질문을 주고 받고, 거기서 결정된 사안을 바탕으로 일을 실현하려면, 우발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청소년은 참여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느끼고 주인답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실천에 간혹 실패도 있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 일곱 번째, 마을의 문화, 예술, 역사, 사람과 연계된 사업 실천

마을은 작은 세계며, 가장 큰 학교다. 일상을 통해 배우는 최상의 배움터다. “최상의 경험은 마을과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 “마을이 학교다.” 우리가 마을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공릉동은 孔(아름답다 : 공) 陵(언덕 : 령), 아름다운 언덕이다. 공릉동은 많은 인구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한 마을 안에 4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고, 불암산, 경춘선 철길, 중랑천, 도깨비시장 등 자랑할 만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이다. 우리는 공릉동 마을의 문화, 역사, 예술, 사람 모든 것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 자원이기때 마을을 최상의 배움터로 인식하고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 여덟 번째, 청소년뿐 아니라, 어린이와 유아, 학부모 대상의 사업 실천에도 관심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분이 참 힘들어지고 있다. 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의 발달이 예전과는 다른 것이다. 청소년이 되기 전 청소년지도자와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청소년기에 선생님과 훨씬 다정하게 속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을이 고향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애착의 기지로 삼았던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곳에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센터만 일을 잘해서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정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청소년 문제를 가정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청소년이 싫어한다고 해서, 청소년을 마을, 가정과 분리된 섬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처럼 따뜻하고, 편한 청소년 시설이 되기도 해야겠지만 각 가정과 이웃이 청소년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돌봄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을을 조작해 나가는 것이 진정 우리 마을 아이를 위한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수없는 질문과 토론의 시간을 거쳤고, 우리의 주요한 실천 대상을 유아와 어린이, 학부모와 지역주민까지로 확대했다.

○ 아홉 번째, 청소년문화의집과 공공도서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청소년 활동 모델 추구

우리센터는 청소년센터이면서 도서관이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다. 우리는 청소년이 되면 자발적인 독서가 거의 사라진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도서관 운동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독서 증진 활동은 활발하고 다양하지만, 청소년기까지 그 영향력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학교마다 학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도서관은 공부하

는 곳이라는 전통적 사고에만 빠져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도서관은 조용히 집중해서, 자기 공부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접근이나 아이의 삶의 문제에 다양하게 개입하는 시도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많은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이용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문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비용과 시간을 낼 수 있는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없는 청소년시설, 아줌마 청소년 시설, 공공성이 부족한 공공시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공공도서관 기능이 강화된 청소년시설로의 길을 가고 있다.

○ 열 번째, 경계 넘기와 가정-학교-지역의 상호연대와 협력의 원칙 고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너무도 강해서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협동을 해야 할 때 장애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는 “나의 경계를 넘어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된다.” 는 다짐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또 경계를 넘는 것 뿐 아니라 마을에서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조직과 상호연대와 협력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교육활동

1. 경쟁과 불안한 세상, 꿈꾸지 않는 아이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물고기 잡아서 파는 어부 일하시는 내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 공부 못하면 ‘똥 푼다.’ 라는 말씀을 가끔씩 하시곤 했다. 나는 정말 공부 못하면 그렇게 될 것만 같았다.” 요즈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지만, ‘최선의 진로는 sky 대학에 진학’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믿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잠재적 진로교육은 여전히 ‘공부 못하면 네 미래와 너의 직업은 어떻게 된다.’ 라는 식의 공포주입식 교육과 매 일반이다.

요즈음 학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내용과 형식도 대학탐방, 직업인과의 만남, 성격검사, 진로체험의 날, 자유학기제 등 기존 교육활동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혁신적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성적 서열에 따라 소득 수준이 서열화 되어 있는 직업구조와 모든 일에서 경제적 가치만 따지는 사회분위기를 혁파하지 않고, 또 경쟁에서의 승리 이외에 꿈꾸지 않는 엄마, 꿈꾸지 못하는 학교, 꿈꿀 수 없는 이웃들과 마을을 내버려두고 아이들에게만 꿈을 가지라고 하는 진로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나는 진로교육 현장에서 가끔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 아이들에게 꿈을 묻는 질문을 던지면, 거의 모든 아이는 ‘전 공부 못하는데요.’ 라고 하던지, 매우 의기소침한 표정을 짓는다. 또는 높은 집값 걱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선생님은 월급 얼마 받는데요?’ 라는 질문만 되돌아 오기 십상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우리사회 다수의 아이들이 ‘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나는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다.’ 는 열패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영악해서 내 미래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적과 부모의 재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2. 진로교육으로 일상에서 말 걸기

고등학교 3학년 나는 대학진학을 코앞에 두고 나의 진로문제와 함께 또 한 명의 진로 선택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반 1등, 전교 1등, 전국 등수까지도 한자리였던 친구의 진학 문제였다. 워낙 이 친구는 S대 역사학과에 진학하겠다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의 명예와 개인의 미래를 위해 같은 대학 법대 진학을 강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과연 그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매우 궁금했다. 솔직히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 내가 성적에 맞춰 어떤 대학, 어느 과에 진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보다도 더 박진감을 느꼈다. 결국 그 친구는 학교의 뜻에 따랐다.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행복할까?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도 학창시절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왜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다른 이의 고민과 선택에 더 크게 집중했던 것일까?

3%만이 핵심인재가 된다고 하고, 그들에게 모든 기회와 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7% 사람들의 삶은 의미 없다고 치부되는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아무리 어떤 한날, 몇 시간 다양한 직업세계를 보여주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고 설파하는 진로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꿈은 여전히 공무원, 교사, 의사, 판사, 변호사, TV에 나오는 연예인, 스포츠 선수, 안정적이거나 한꺼번에 부와 명예를 손아귀에 거머쥘 수 있는 직업을 반복해 말하는 것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새로운 진로교육 시도들조차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조금은 철학적이지만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질문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존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흔들리면 뒤흔들린다고 배워온 아이들은 중요한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매력 있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마음이 학교다” 박원순(2010) 시장이 쓴 책 이름 중 하나다. 또한 노원구 구석 구석에 현수막으로 안내되고 있는, 노원구에서 시작한 교육 정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마음이 학교다”라는 선언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배워야 할 것이 학교와 책상 위에만 있지 않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경제적 생산성의 가치에 모두 함몰된 목표)를 정해두고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삶을 추구하며, 배우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같다. 또 학교와 학원 중심의 경쟁적 지식교육 현실의 한계를 마을에서 풀어나 보겠다는 상상력과

의지가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마을이 학교다’ 라는 말 속에는 다른 배움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녹아있는 듯하다.

진로교육이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고, 제시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들에게 TV와 교과서, 각종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주류적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진로교육의 장소는 교실과 학교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허나, 그 장소가 화려한 중심보다는 변방, 바로 우리 주변의 ‘마을’ 이면 더욱 좋겠다. 진로교육에서 의미 있는 경험은 모두가 박수치는 멋진 직업인을 만나고, 선망하는 대학을 찾아가서 배우는 마음을 매료시키는 활동일 수도 있지만, 마을길을 걷고,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평범한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는 활동일 수도 있어야 한다. 또 동아리 활동이던, 봉사활동이던 일상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을 경험하고, 또 작지만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의미 있는 마을 일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져보는 경험’ 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경험이 쌓인 청소년들은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형이상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진로교육장이다.

3. 우리센터와 마을이 함께하는 진로교육 실천들

가. 열 가지 주제의 일들과 진로교육

- 자주적이면서, 더불어 사는 청소년을 길러내는 일
-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일
- 예술과 문화적 표현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는 일
-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새로운 체험과 도전을 경험하게 하는 일
- 문화와 문화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일
-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미래를 계획해보도록 돕는 일
- 정규 학교 교육을 지원하며, 가족의 관계를 증진하는 일
-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위기 청소년을 돕고, 마땅한 지원책을 찾아 주선하는 일
- 지역 공동체 활동과 평생학습 활동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
- 모든 일의 진행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 안전, 홍보, 행정적 사무를 수행하는 일

<우리센터가 하는 열 가지 주제의 일들>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 한동안 세계의 지배 질서는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황금만능주의, 경쟁 제일주의, 인간의 도구화 수단화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구질서인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왔는데 경제 위기, 환경파괴, 인간의 존엄성과 지구의 지속가능성 위기 등으로 기존의 지배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 질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세대가 우선 집중해야 할 일은 아마도 과도한 경쟁체제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에 있지 않을까? 세상은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변화하고 있는가? 여전히 일상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적 암기 학습에 함몰되어 있기도 하고, 끝없이 경쟁만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에게 필요한 역량은 키워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일까?

위와 같은 고민이 개관 초기에 밀려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근거로 새로운 활동을 모색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위에 제시한 열 가지 주제로 정리하였다. 또 이 열 가지 주제는 모두 아이의 꿈, 진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 특히 진로 교육으로 특정할 수 있는 교육활동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나. 활동 사례

① 활동사례 1 : 인문적 경험을 확장하는 시도들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도서관을 통한 인문학강좌, 마을과 학교, 청소년센터가 연계된 진로 교육 활동
- 주요내용
 - 도서관 청소년 인문학 강좌 “꿈꾸니까 청소년이다.” 그 외 주민교육
 - 꿈을 열어주는 열새 夢-Key(1,2,3)
 - 주민들의 삶의 스토리를 나누는 “백인백색”
 - 도서관 일촌 청소년사서들이 만드는 “사람책 도서관”
 - 청소년예술학교, 연극, 음악 등의 동아리 활동

우리센터에는 어린이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이 주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서관을 통해 독서활동을 촉진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사람, 그들의 삶을 만나는 것이 인문학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크고 작은 강좌를 열고, 성인과 청소년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이 만나고 관계 맺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은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좋은 사

람이 되려면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한다. 인문학의 人文은 사람의 무늬, 사람의 결(인품, 태도, 삶의 가치)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을 공릉동 안에서 찾거나 공릉동으로 불러 모아 그들의 삶과 생각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12년 두해 동안에만 공릉동으로 초청해온 사람이 어림잡아 200명은 될 것 같다.

희망제작소의 경험에 의해서 출간된 박원순의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2011)이라는 소책자와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2011)라는 길담서원의 진로 강좌를 엮은 책,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프로젝트 「행복한 진로교육」(2011)은 우리센터의 진로교육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던 일들도 모두 직업으로 탄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직업보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의 중요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잘하고 관심 갖는 모든 일이 직업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것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았고,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다.

그중엔 마을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 동네 아저씨, 이대 앞에서 옷가게하시는 분, 커피숍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 분, 대안교육 운동가, 거리에서 장사하는 대학생, 공연기획과 축제기획하시는 분, 모금 전문가, 군인, 일반회사원 가지각색이었다. 이들을 초청할 땐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있다. 자신만의 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다. 꿈이야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아이들에게 직업정보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강사 선택의 조건이다. 2014년에는 공릉동 꿈마을 100인 100색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범한 마을 사람 100명의 삶의 스토리를 정리하고, 이 정리된 자료를 마을의 청소년과 주민들과 함께 나눌 궁리를 하고 있다. 그 외 꿈을 열어주는 열쇠 몽키(夢-Key)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학급단위의 참여 신청자가 있을 때(보통 학교 진로동아리, 학급단위의 체험활동으로 연결된다.)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3가지 버전으로 움직인다. 첫 번째 몽키는 ‘센터 내 직업을 찾아라’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센터의 인력구성이 다양하기에 시도될 수 있는 활동이다. 센터에 대한 기본 설명과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사서, 회계, 안전관리 등의 직군의 특성과 업무 특성을 설명해주고 센터 내에서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과 연결된 직업 체험 몽키다.

마을 사람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바리스타, 공예전문가, 연극인 등이 간단한 강의를 하고, 자신의 직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들과 나누게 된다. 세 번째 몽키는 마을 여행과 연결된다. 마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직접 직업체험 현장을 보게 되는데 공릉동 내 사회적 기업이나 꿈마을 공동체와 연결된 사업장을 찾아가게 된다. 세 가지의 몽키 프로그램 모두 마을의 사람들과 연결하며 청소년들의 인문적 경험이 확장되도록 하는 시도이다.

단회기적 체험 활동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과 계절 학기로 운영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연극동아리를 운영하는 청소년은 대본을 각색하고, 연출, 조명, 무대를 꾸미는 일 모두를 서로 나누며 협동 작업을 통해 공연을 올린다. 공연기획을 하는 역발상 동아리와 댄스, 밴드 등의 동아리가 20여개 활동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나도, 꽃’ 공간도 예술교육과 여행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글을 쓰고, 책을 낸 작가들도 많이 초청해서 아이들과 만나게 하고 있다. 작가는 삶의 이야기, 생각을 글로 옮기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삶에 대한 다채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책 도서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함께 부모님 대상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연중 연속강좌로 열고 있다. 이유는 엄마가 꿈꾸고, 옆집 엄마가 함께 꿈꿔야 아이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판단은 주효했고, 지나친 경쟁을 줄여가며 함께 사는 마을로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② 활동사례 2 :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시작된 변화’

- 사업기간 : 2011~2014년 현재까지 4년차 진행, 연중 활동
- 사업내용 : 청소년 중심이 되는 마을 만들기 활동
- 주요내용
 - 청소년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 청소년 자발적 사회참여 활동 담당교사, 자원봉사자 워크숍
 - 활동보고서와 활동 포트폴리오 결과물로 제출, 노원청소년 마을 만들기 활동 발표회

‘시작된 변화’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고, 공동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가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1년간의 프로젝트이며, 같은 문제의

식을 가진 청소년 3명이상이 한 그룹으로 뭉쳐져 마을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활동의 결과는 글로 정리해 책자를 만들고, 컴퓨터를 활용해 대중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마을 활동을 통해 삶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이 잘하는 점과 약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협력의 방식을 배우기도 한다.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비판적 사고능력, 기획력과 실행력을 기를 수 있다. 2011년 10개 모둠 60명으로 시작한 이 활동은 매년 20여개 모둠 200명가량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성장했다.

‘시작된 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활동과 담당선생님과 활동모둠 간의 주기적 만남과 활동에 대한 코칭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이 마을과 세상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워크숍을 기획했다. 워크숍은 시작 시기인 4월과 여름방학을 이용했고, 여름방학 중 워크숍은 ‘세상과 마을을 바꾸는 청소년 학교’라는 이름으로 실시하였다. 줄여서 ‘세마청’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자원봉사 여름학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개척해가고 있는 활동가들을 모셔서 강연을 듣는 방식이다. 단순하다. 그렇지만 이 단순한 교육활동에 학생들은 열의를 보인다. 교육의 방식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삶을 듣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변화는 일어난다. 노원에코센터 강시원 국장을 만난 아이들은 환경에 눈을 떴다고 말한다. 학교에서도 환경 교육이 있지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녹여서 하는 이야기에 아이들은 감동을 받게 된다.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을 만난 아이들은 영어공부 할 이유가 생겼다고 한다. 이유는 난민과 친구 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마을을 바꾸는 마을 활동가, 대안교육운동가, 주민조직가, 인권운동가 등의 소셜디자이너를 만나고 있다. 세마청 학교의 마지막 날에는 참석한 청소년들이 직접 소셜활동가로서 무엇을 바꾸고 싶고, 바꿀 수 있는지를 상상하고, 발표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고, 그 세상을 나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일부 아이들은 세마청 이후 ‘시작된 변화’ 활동 모듬을 결성하여 구체적 실천을 이어가게 된다.

또한 마을과 연결된 ‘시작된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활동을 준비하려는 학교나 기관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프로젝트의 취지와 진행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당자의 경우 청소년과 마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청소년, 주민과 관계 맺는 능력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의 마을에 대한 관심,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프로젝트로 인해 만났지만 청소년들은 인격적인 따뜻한 관계를 요구한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활동보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경청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담당자는 오랜 기다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시작된 변화’는 청소년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시작된 변화’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는 OECD에서 정한 청소년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 스스로가 스스로 선택한 과업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인터넷, 도서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가는 능력이 신장되고 있다. 또한 발표대회와 책자 발간 등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활동 결과를 말과 글로 정리하게된다. 이 정리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재구성하고 있고, 이는 읽고, 쓰고, 말하는 삶의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을을 답사하러 다니다보니 어두워 보이던 골목마다 가로등이 한두개씩은 꼭 배치되어 있었는데 찾아보니 서울시에서 가로등은 30m에 하나씩 꼭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공릉중학교(공소) 최민선

설문지를 만들 때 에너지 관련 설문지를 찾기 힘들어서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겨우 찾아서 설문지를 만든 후 조사했다.

한천중학교(U.S.E) 신정훈

둘째, 다양한 사람, 집단과 관계 맺기, 협력과 협동,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며 타협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팀원들이 얼마나 협동해야 팀이 잘 이끌어져 가는지와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가였다. 의견이 잘 맞지 않아 약간 힘들기도 하였지만 나중에는 잘 단합하여 일을 하나하나 끝마쳐 갔다.

태랑중학교(해결사) 양혜리

우리는 아이들과 무슨 미술활동을 할지 계획하고 같이 활동할 아이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지도 만들었다. 같이 머리를 쓰고 몸을 쓰다 보니 서로 더 친해지고 아이들과 교감하기 전에 먼저 팀원들과 교감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중화고등학교(교감) 이신원

어른들에게 설문지를 받는 것도 힘들었고 중간 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조는 이번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발전해가는 법을 배운 것 같다.

공릉중학교(공소) 권하림

셋째, 청소년들이 마을 안에서 스스로의 과업을 찾고, 해결을 위한 실천하는 활동을 하

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우리 동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친구들과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문득 요즘 초등학생들이 일찍부터 공부하느라 문화체험 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문화를 초등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다. 초등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면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해서 준비하면서 나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몽블랑) 권윤지

무엇보다 주제부터 시작해 활동내용까지 스스로가 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에서 책임감과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았다. 덧붙여 활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아서 활동 중에 끝없이 변화를 거듭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았다.

해성여자고등학교(흰여울) 박희진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는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직업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궁리해가며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실천력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경험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다.

③ 활동사례 3 : 온 마을을 꿈 배움터로 ‘꿈나르샤’ (꿈으로 날아오르자!)

- 사업기간 : 2012년 9.7(금) ~ 9.8(토) 2일간, 이후 매년 9월
- 사업내용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낸 청소년 꿈, 길 찾기 축제
- 사업주체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릉중, 태랑중, 학부모회, 꿈마을공동체
- 주요내용
 - 청소년 스스로 기획팀(꿈 날개) 꾸리기, 80여명의 꿈멘토 초청
 -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별별 마당
 - 벽화 공공미술, 조형물 함께 만들기, 마을 선포식 등

마을 전체를 하나의 꿈 교육장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을까?, 진로교육은 재미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었다. 꿈꿀 수 있는 하루, 재미있는 하루를 만든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스스로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관 2년째인 신생 기관(청소년센터) 혼자 힘만으로는 이런 하루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꿈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서를 가지고 마을 내 협력 가능한 기관 및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함께 꿈

마을 축제를 개최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발로 똥 덕에 센터에서 첫 번째 준비 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14개 단체가 공동체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생겨난 회의 체제를 통해 축제를 준비해감과 동시에 우리 마을이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마을로 지역 주민과 단체의 힘을 집결하자는 공릉동꿈마을공동체를 세우는 데 합의한다. 공릉동꿈마을 공동체의 첫 번째 공동사업은 ‘꿈나르샤’가 되었고, 하루가 아닌 이틀의 시간을 할애하기로 또 축제 장소를 학교와 청소년센터 이외에 마을의 찾길(110m)과 주민센터 앞마당, 성당 앞마당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의 참여도 적극적이어서 이틀 동안 재미있게 축제의 내용을 채우게 되었다. 하루는 2개 중학교 2,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꿈멘토 배움터와 문화행사로 열고, 이틀째는 마을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마을 축제로 진행했다. 내용은 청소년들의 문화 발표회, 마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꿈마을 벽화, 각종 체험행사, 강연 등으로 채웠다. 이 과정에서 봉사로 참여한 마을 주민들, 꿈멘토가 되어준 다양한 직업인들, 행사에 협조하고 후원한 상가, 또 공릉동 내 소재한 대학과 대학생 언니, 오빠의 참여,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기획과 공연으로 봉사한 것 등 마을 전체가 하루의 꿈꾸는 날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게 되었다.

꿈나르샤의 추진을 위한 협력의 결과로 꿈마을 공동체에서는 매년 9월 9일을 공릉동 청소년들이 꿈꾸는 꿈의 날로 선정했다. 또한 우리 마을을 꿈마을로 선언하고, 어느 마을에도 없을 법한 꿈마을 선언을 제정하고 선포했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였던 꿈마을 공동체는 이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고민하는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는 2012년 9월 8일 꿈마을 선언과 ‘꿈나르샤’ 축제 준비를 시작으로 우리마을을 꿈 공동체, 학습공동체, 문화공동체, 행복공동체로 만들어 가기위해 2012년 7월 결성된 공릉동 지역협의체이자 마을공동체 운동이다. 현재 공릉동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라는 교육복지 거점을 중심으로 50여개가 넘는 주민 자치 조직과 학습조직이 탄생되고, 활성화 되어 서로 느슨히 연결되며 마을 활동을 펼치고 있다.

④ 활동사례 4 : 마을 속에서 스토리 만들기 ‘누구도 하지 못한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4년 9월~12월 중 12주간
- 사업내용 : 3명 이상의 청소년 동아리가 펼치는 프로젝트 활동
- 주요내용
 - 아무나 할 수 있는 워크숍
 - 네 가지 주제 중 하나의 활동 주제 선택
 - 구체적 활동 계획 수립과 실행
 - 활동의 경험 나누기

2014년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다. ‘누구도 하지 못한 프로젝트’ (이하 누하프)라는 긴 이름의 프로젝트다. 누하프는 시작된 변화가 가지는 1년 단위라는 긴 시간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담과 공공성이라는 무게감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상되었다.⁵⁾ 누하프는 워크숍, 모둠 결성과 준비와 실행을 하고, 경험 재구성 기간을 거쳐서 최종 발표회를 하는 총 3개월 프로젝트다. 누하프의 실행과정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1인 월 2만원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모둠에서 사용방법을 결정해서 지출한다. 2014년에는 연 1회 4개 모둠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연 2회 이상 진행하게 된다. 참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통해 동기 부여된 청소년들이 3명 이상의 친구들을 모아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활동을 준비하는 모둠에 대해서는 매개자가 되어줄 대학생 코치가 배치된다. 누하프에서는 크게 네 가지 활동 방향을 제시해 준다. 첫 번째 칼라풀 프로젝트, 사람의 색은 모두 다르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뷰, 탐구, 정리, 소개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 존 고다드 프로젝트,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을 한 가지 선정해서 30일간 꾸준히 실행해가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대형 구조물 만들기, 피아노 협주 연습하기 등으로 구현된다. 세 번째,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이제까지 없었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궁리와 실천의 활동이다. 네 번째, 살림 프로젝트 자기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실행하는 활동이다. 요리배우기, 제품이나 실용적인 것 만들기, 청소하기, 장사하기 등이 주제가 되는 활동이다. ‘누하프’의 모든 활동은 ‘모든 인생은 훌륭하다’라는 한줄 선언문을 걸고, 제 앞가림 할 수 있는 단단하고, 당당한 청소년 만들기, 내 삶의 스토리 만들기를 목적으로 진행한다.

5) 시작된 변화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참여 비율이 10:90 정도이다. 여학생의 참여비율이 90%가량이나 된다. 누하프를 시작할 때 남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했다. 남학생들이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더 크다는 경험적 근거에서 누하프는 내 길 찾기라는 주제를 더 선명하게 했다. 그 결과인지 2014년 처음 시작한 누하프에는 남학생이 60%가량 참여하고 있다.

4. 아직도 가야할 길

“우리는 경험에서 배운다.”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971)⁶⁾라는 진부한 문구에 분명 의미가 있다. 우리는 “경험이 최고의 학습이다.” 라는 말도 쉽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집-학교-학원을 순환하게만 하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은 자신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빼앗겨 버렸다. 우리는 진로교육 실천에서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교육사상가 프레네(교육학의 불변법칙, 1964)⁷⁾의 말을 기억해보자.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헛되이 챗바퀴 돌게 하거나 로봇 처럼 행동하게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로교육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는 이 간단한 명제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최근 들어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듯하다. 학교마다 진로담당교사가 배치되고, 진로교육을 대신해주는 전문적 영리기업의 활동이 주목받기도 한다. 청소년센터마다 진로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대학탐방, 바리스타, 변호사와의 만남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고, 키자니아⁸⁾와 같은 전문 진로체험장이 생겨나고 있다. 직업-진로체험장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의 영역에서도 조금씩 탄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적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이 ‘진로교육’을 너무 ‘직업선택’이라는 주제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 우려를 하게 된다.

또 우리는 ‘나의 꿈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봐야 한다. 전문적 진로교육 활동은 많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다양한 꿈과 삶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파해야 한다. 그 이유 중 일부가 혹시나 너무 일찍 청소년들에게 직업선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전문적 진로 프로그램에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진로교육은 진학과 직업에 대해 ‘정조준’ 하는 것보다 마을과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이 청소년에게 의미 있게 말을 걸어오도록 ‘오조준’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앞서 소개한 우리의 몇 가지 활동은 직업선택의 측면으로 보자면 전문적 진로교육이라

6) 사울 D. 알린스키, 옮긴이 박순성·박지우,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2008, 아르케

7) 정훈, 자발성과 협력의 프레네 교육학, 2009, 내일을 여는 책

8) 송파구 잠실동 위치, 어린이 직업체험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상업 시설

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례일 수 있다. 하지만 진로교육이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진로교육에서 인문적 성찰을 촉진하려는 우리센터의 노력,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작된 변화와 누구도 하지 못한 프로젝트 그리고 공동동사람들이 힘을 모아 꿈꾸는 마을로 만들어가는 지역교육활동 실천사례는 답답한 진로교육 현실에 조금이지만 의미 있는 상상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마을을 바탕으로 한 교육 활동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주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겠다.

- ① 진로교육의 장은 가상의 진로교육 체험장 보다는 ‘마을’ 이어야 한다.
- ② 진로교육은 정확한 선택을 돕는 것이 아니다. 함께 흔들리면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 ③ 전문 기관에서 모든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
- ④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 ⑤ 다양한 진로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경쟁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 ⑥ 직업의 조건보다 일, 노동의 가치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먼저다.
- ⑦ 꿈꾸는 마을, 꿈꾸는 학교, 꿈꾸는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이 꿈꾼다.
- ⑧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 ⑨ 지식 쌓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가사기 히로오 저, 황선희 옮김. 2011. “마을 만들기 매뉴얼” . 아르케.
- 김기홍. 2015. “마을의 재발견” . 올림.
- 김이배, 홍봉선. 2015. “사회복지관 주민조직화 매뉴얼 연구” . 부산복지개발원.
- 권일남, 오해섭, 이교봉. 2013. “청소년활동론” . 공동체.
- 서용선, 김용련 외. 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 연구” . 경기도교육연구원.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매뉴얼” .
-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6. “우리가 사는 마을” . 학교도서관저널.
- 폴 매티시 저, 장수찬 옮김. 2015.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알아야 할 28가지” . 충남발전연구원 현장총서.